

연합통신 1995년 1월 11일

## 10여년 줄다리기 美개방압력 지속

- 소비급증하는 유통시장 간주 유통감시 강화 -

“정부는 앞으로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 수급 조절용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84년 10월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무섭게 추락하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1년전에 1백61만원 하던 4백kg짜리 암소 한 마리가 1백만원이하로 폭락하면서 도산하는 한우 사육농가가 속출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자 정부는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수입선인 미국과 호주에 전격 통보했다.

우리정부는 이어 85년 5월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던 관광호텔용 쇠고기까지 수입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미국의 분노를 샀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의 10여년에 걸친 쇠고기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미국정부는 85년 야이터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한국에 파견, 한국의 쇠고기 수입중단은 국제통상 관행에 어긋나는 처사라면서 한국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 육류협회(AMI)는 마침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를 위해 88년 2월 미국정부에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청원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301조에 의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데 이어 GATT에 제소를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89년 11월 GATT는 한국이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3개월내에 쇠고기 수입 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라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면서 이른바 GATT의 BOP(국제수지)조항에 따른 수입제한 허용국에 제외됐다.

결국 우리나라는 97년 7월부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그 이전에 쇠고기의 수입쿼터를 한미간 협상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92년의 우리나라 쇠고기수입량은 13만2천톤으로 쇠고기수입을 중단하던 84년의 2만6천톤에 비해 5배를 넘어서게 됐으며 쇠고기의 자급률은 절반이하인 43.9%로 떨어졌다. 지난해도 쇠고기자급률은 54.5%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따라 오는 2000년에는 쇠고기의 수입쿼터를 22만5천톤까지 늘린 후 2001년에는 관세율 41.2%로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게 됐다.

현재의 가격이 변함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1년에 관세율 41.2%에 제비용을 붙여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현재보다 30%가 떨어진 kg당 4천9백81원으로 한우고기의 1만8백78원에 비해 45.8%에 불과하게 된다.

정부는 2000년의 우리나라 쇠고기자급률이 37%수준에 머물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축산전문가들은 한우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강화 조치가 없다면 3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육류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육류업계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육류 및 육가공품 유통기한, 수입관행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줄 것을 자국정부에 청원했으며 USTR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미국산 육류의 우수성을 세계각국에 홍보하고 육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미육류수출협회의 필립 생 사장은 최근 몇년간에 걸

쳐 한미간에 쇠고기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많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육류업계가 제소를 하게 됐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실례로 한국이 작년부터 냉장돈육을 수입기로 했으나 한국에서 유통기한이 10일이란 이유로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 손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손으로는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냉장 유통체인이 완비되지 않아 냉장육을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조선산업이나 반도체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정부가 이같은 시설을 하려는 노력만 보인다면 단기간에 새로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01조의 발동을 청원한 전미육우협회(NCA) 탐 쿡 회장은 301조의 발동에 따른 처리문제는 미국정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WTO 체제는 비판세장벽을 무너 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세계각국의 쇠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쇠고기산업은 전망이 매우 밝다면서 대한수출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쇠고기 등 육류의 수출에 대해 강력한 집념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농업에서 쇠고기의 비중이 가장 큰데다 수출확대로 쇠고기값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쇠고기 및 부산물의 단골고객이었던 유럽이 쇠고기를 자급함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쇠고기 구매력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 쌀·쇠고기 소비량 추이

|     |         | 90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추산) |
|-----|---------|-------|-------|-------|-------|-------|---------|
| 쌀   | 자 급 륜   | 110.0 | 104.9 | 102.8 | 103.3 | 94.0  | 101.5   |
|     | 1인당 소비량 | 119.6 | 116.3 | 112.9 | 110.2 | 108.3 | 105.7   |
| 쇠고기 | 자 급 륜   | 52.5  | 44.1  | 43.9  | 55.7  | 54.5  | ?       |
|     | 1인당소비량  | 4.1   | 5.2   | 5.2   | 5.3   | 6.0   | ?       |

\* 단위: 자급률은 %, 1인당 소비량은 kg

미국의 쇠고기값은 전체 도축소의 42%를 차지하는 초이스급의 경우 지난 90년에 1백파운드당 1백23.21달러에서 92년에는 1백16.73달러로 떨어졌으며 이같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는 지방질이 많은 쇠고기의 기피현상이 확산돼 미국인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지난 76년 42.8kg에서 91년에는 30.5kg, 92년 30.1kg, 93년 29.8kg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육류업계는 따라서 쇠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을 가장 매력있는 시장의 하나로 보고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 75년의 2.0kg에서 91년에는 5.2kg으로 급증했으며 94년에는 6.0kg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정부와 육류업계는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이 6년후인 2001년에 전면 개방되는 일정표가 잡혀있지만 한국을 의심하는 눈치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국정부가 소비자들이 싼값에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감시와 개선요구를 대신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쇠고기 협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 인지도 모른다.

한편 지난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내산은 14만6천5백톤으로 13.0%, 수입산은 12만2천1백톤으로 18.2%가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쇠고기의 자급률은 54.5%로 전년의 55.7%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졌다.

쇠고기의 국별 수입실적을 보면 미국이 6만7백톤으로 50.7%를 기록, 전년의 43.7%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호주산은 3만3천6백톤으로 43.3%에서 33.6%로 낮아졌다.

## 「가격파괴」시대 기업들 대응전략

**비** 용파괴로 가격파괴에 맞선다」 프라이스클럽, E마트 등 할인전문점포들이 가격파괴의 바람을 몰고 오자 이들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비용파괴로 대응하고 있다.

할인점포의 주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그나마도 마진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비용파괴는 원자재가격절감에서 포장비절감, 운송비절감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대 전제는 품질은 종전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이다.

원자재가격에서 비용을 낮추려는 대표적 업체는 의류제조회사 (주)이랜드, 이 회사는 지난 10월 이랜드 월 드리는 구매전문회사를 설립, 각 브랜드별로 따로 구입해오던 원·부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있다. 이 회사 관 계자는 일괄구매방식으로 원가의 30%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포장비 절감에 나선 제조업체는 식 품과 생필품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때 유행했던 날개 포장을 없애고 여러개를 한데 묶어 포장, 포장 지를 절약하고 있다. 이들의 비용파괴 노력은 최소한으로 간결한 포장지디자인을 채택, 포장지 인쇄비를 삭 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주)제일제당은 한 개씩 판매하던 김밥햄을 3~5개씩 묶어 포장하고 조미료인 다시다는 최대포장을 1kg에 서 2kg으로 조정하는 등 포장단위를 대형화하여 할인전문점에 납품하고 있다. 오래 보관이 가능한 캔·통 조림류는 아예 상자 단위로만 내놓는다.

(주)릭키도 빨래세제 한스푼의 경우 소매점용은 3kg짜리가 가장 컸으나 할인전문점에 납품할 때는 5kg들이 로 만드는 등 포장단위의 대형화에 나섰다. 식기세제인 자연풍도 1kg짜리가 가장 컸지만 할인업소에는 2kg짜 리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주)새한미디어는 비디오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등 제품의 레이블이나 속상자의 포장재를 제품에 손상을 가 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막았다.

이들 업체들은 포장재비용 디자인비용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감으로 원가의 20%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수송과 하역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사적이다.

최단 거리를 파악, 교통체증에서 오는 시간손실을 최소화하고 매달 필요한 물량을 미리 파악, 일회에 납품 하는 방식으로 배달횟수를 줄이고 있다. 제품 상자의 크기를 규격화해 지게차 상하차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9월 롯데백화점이 본격가동하기 시작한 종합유통 VAN(부가가치전산망)시스템은 가격파괴 풍조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공동노력이다. 이 시스템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전산망을 통 하여 납품정보, 수주·발주정보, 신상품정보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정보체계이다. 참여업체들은 정확 한 유통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수주업무가 자동화되므로 방문수주에 드는 비용과 인력의 절약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할인전문점포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앞으로 보편화될 추세에 있는 가격파괴 에 제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 「비용파괴」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94년 12월 19일